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관하여

백승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BIEN대회 프로그램위원회 공동위원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대회가 올해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BIEN은 현재 전 세계에서 35개 나라 및 유럽네트워크, 세계기본소득(World Basic Income)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제13차 BIEN 대회에서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되었고, 2016년 제16차 BIEN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6년에 이어 7년 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2차 BIEN 대회입니다.

BIEN대회의 의의는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가, 연구자들이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의 기회를 공유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입니다. BIEN 대회를 알리는 소개문에는 이번 대회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전지구적 실현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해왔던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을 단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신 온몸으로, 온몸으로 ‘현실 속의 기본소득’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지난 십여 년 사이 우리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파일럿, 부분적

인 제도적 실시, 정치적 진전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그 시도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유토피아 원리로서의 기본소득이 현실로 내려왔을 때 어떠한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는지, 어떠한 정치적 역동이 전개되는지, 어떠한 대안적 성과들을 얻어내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현실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대주제하에 BIEN 대회는 전체 세션과 개별세션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전체세션은 BIEN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션입니다. 전체세션은 총 11개국의 연사들이 참여합니다.

한국 발표자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전 이사장님과 안효상 현 이사장님, 한국 기본소득을 이론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 연구자이자 실천가이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님과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님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전체 세션의 기조발제자로 참여합니다.

해외 연사들로는 전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인물들인 애니 밀러,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마모리 도루, 루이즈 하그, 마이클 터브스, 사라트 다발라, 스콧 샌턴스, 알마즈 젤레케,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 조르헤 핀투, 호베르투 메릴이 현실속의 기본소득에 대한 뛰어난 통찰들을 제시해줄 예정입니다.

전체 세션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세션 1. 정치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치

전체세션 2.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전체세션 3. 문턱에선 기본소득: 정책, 실험, 입법

전체세션 4.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전체세션 5. 한국의 기본소득

전체세션 6. 기본소득 실험들: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전체세션 7.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 의미와 전망

개별 세션은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가 및 연구자, 일반시민들로 부터 발표신청을 받아, 프로그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개국 140여개의 발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개별 세션은 같은 시간대에 2~4개의 소주제들 발표가 진행됩니다.

소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의 변화,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날까?(세션1)
 현실에서 기본소득 프레이밍하기(세션 2, 세션 5)
 기본소득과 창조적 예술(세션 3)
 한국 맥락에서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 보편적 EITC의 통합모델(세션 4, 35)
 기본소득, 기후 정의, 정치철학(세션 6)
 기본소득, 불평등 빈곤(세션 7, 9, 18, 21, 25)
 공유지와 기본소득(세션 8)
 기본소득, 불평등, 정치(세션 10)
 기본소득과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세션 11)
 현실속의 기본소득(세션 12)
 기본소득, 공유지, 공유화(세션 13),
 기본소득과 젠더(세션 15)
 기본소득의 경제학(세션 16, 세션 22)
 청년정치와 기본소득: “나는 왜 기본소득 정치를 하는가?”(세션 17)
 기본소득의 정치학(세션 19, 23, 28, 29, 30)
 보편적 기본소득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세션 20)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적 접근: 질적-재구성적 연구의 경우는?(세션 24)
 기본소득운동과 사례연구(세션 26), 기본소득 국가 사례: 한국(세션 27)
 기본소득, 기후정의, 자원마련(세션 31)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세션 32)
 문학과 기본소득: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세션 33)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별 사례연구(세션 34)
 워크프리:인도기본소득의 경험(세션 36)

지금까지의 어느 BIEN대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흥미로운 주제들과 훌륭한 연사들 그리고 탄탄한 대회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일 동안의 기본소득 대장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관들이 대회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후원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면서 대회 자원마련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전남과 서울 공동개최 추진이 물거품이 되었고, 국회에서의 개회식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여러 조직들의 십시일반 후원과 역할분담을 통해 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홍

보대사(이선배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소통담당) 및 시민사회 자문단, 기본소득당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고, 국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흔쾌히 지원해준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상적인 기본소득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들이 이번 BIEN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단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독자 여러분, ‘현실 속의 기본소득’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들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